

연 중 제 24 주 일

기도서 P. 437 C해

- 1독(출애 32,7-11.13-14절)
- 2독(디모전 1,12-17절)
- 후음(루가15,1-32 후15,1-10)

숲 정 이

발행인 범 석 규
 인쇄인 이 수 현
 주간 조 심 호
 편집 한 상 갑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의6
 전주교구청 내 (전화 55098)

□칼론□



돌아와요 내 형제여!

박 종 상 신부

우리는 오늘 루가복음 15장에서 사랑이신 하느님 아버지의 모습을 더욱 잘 알아볼 수 있다. 「잃었던 양 한 마리」, 「잃었던 은전」, 「잃었던 아들」의 비유 말씀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이 말씀이야말로 인간미가 가득찬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친근한 가르침이기도 하다.

사실, 값비싼 것이 아닌 하찮은 것만 잃어버려도 마음이 아픈 것이 인지상정이다. 잃었던 것을 찾았을 때의 기쁨이야 두 말 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찮은 것이 아닌 아주 값진, 바꿀 수 없는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다. 자기 자신, 양심, 우정, 예의, 진리, 정의, 평화, 사랑 등을 잃고서도 잃은 줄을 모르고 지내는 실정인 것이다. 이렇게 값진 것을 잃은 인간들은 오늘날 고통과 고독을 느끼며 소외(疎外)를 말하기도 한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물질문명의 발달로 풍요로움 속에 살면서도 항상 무언가를 갈망하는 것이다.

오늘날 많은 인간들은 자기 마음의 고향을 떠나 무당가출한 양심을 찾으려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 사회에는 부정과 부패, 부조리가 만연하고 있는 것이다. 종교인이 그러할 때 그는 십자가 표지를 단 도둑놈으로 전락할 것이고, 경제인의 마음에서 양심이 나갔을 때 빈부의 격차는 심해지고, 정치인의 가슴에서 양심이 떠났을 때 그는 독재자로 탈바꿈을 할 것이다. 사회가 모두 그러할 때 거기에는 혼란과 무질서만이 남을 것이다.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는 아직은 집떠난 형제의 귀환을 기다리는 한 가닥의 바램이 있다. 유행가를 하나 보자. 「꽃피는 등백색에 봄이 왔건만, 형제떠난 부산항에 갈매기만 슬피 울어. 오륙도 돌아가는 연락선마다 목메어 불러봐도 대답없는 내 형제여. 돌아와요 부산항에 그리운 내 형제여.」바로 이것이다. 내마음을 떠나버린 소중한 것들이 하루빨리 다시 돌아오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카터의 도덕정치론에 대한 김수환 추기경의 말씀은 음미해볼만한 가치가 있다. 「어떻게 보면 그의 정책이 너무나 이상에 치우쳐 현실정치와 거리가 있는 것 같다. 그 때문에 그는 정치가로서는 실패할지 모른다. 그러나 오늘날의 정치 현실이 그를 못받아 들인다면 인류사회는 불행해질 것이다.」

이제 우리에게선 결단이 필요할 뿐이다. 어쩌면 그것은 십자가를 전제로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와서 망서려서는 안된다. 그러할 때 하느님께서 “이 기쁜 날을 어떻게 즐기지 않겠느냐?” 고 반문하시며 살진 송아지를 잡는 잔치를 기꺼이 벌이실 것이다.

(순창 천주교회 주임신부)



결 의 문

— 平協 10 차 총회에서

한국 천주교회는 주님의 오묘한 섭리하심으로 평신도에 의하여 전래되어 오늘에 이른 자랑스러운 역사를 지니고 있다.

우리의 주님 그리스도는 인류를 해방하신 분이요, 우리는 그 해방의 일에 동참함으로써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선 해방을 요구하는 많은 과제들이 부여되어 있다. 이 일을 외면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반하게 되고, 순교 선열의 값진 피를 헛되게 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에게선 십자가의 고통과 부활의 기쁨이 있을 뿐이다.

이에 한국 천주교 평신도 사도적 전국 협의회는 제10차 정기총회와 연수회를 마치고 한국의 100만 천주교 신자가 가야 할 바를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복음과 공의회 정신을 더욱 익혀서 이 시대의 징표를 바로 읽어 고통받고 소외된 형제들의 편에 선다.

1. 유일한 반공의 보루인 교회의 분열을 피하는 일들을 지시하고 그 일의 즉각 중단을 요청하며, 그들과 그들의 희생자들을 위해 기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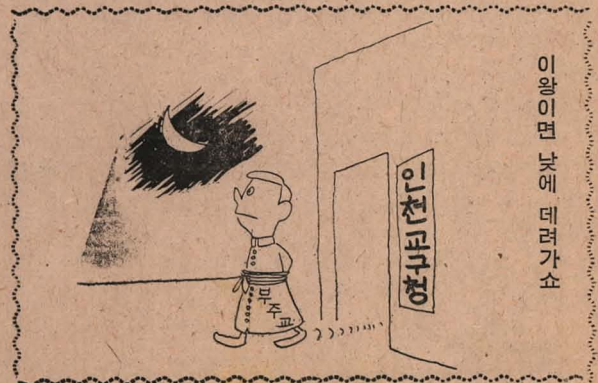
1. 이 시대의 예언자들, 특히 3,1사건에 관련되어 고통받고 있는 애국인사와 목자들을 위해 계속 기도한다.

1. 이 땅에 만연된 대형화되고 악랄해진 부정과 부조리의 척결을 위해 지도자들이 바른 표양을 보여 줄 것을 촉구하며, 지도자들을 위해 계속 기도한다.

1977년 9월 4일 전주에서

한국 천주교 평신도 사도적 전국 협의회

숲 정 이 산책



□ 성서교실 18 □



필레몬서

강 덕 수 부제

저자 집필 장소와 연대 : 사도 바울로는 이 편지를 감옥에서 썼고(1절), 이 투옥은 전통적으로 알려진 바에 의하면 로마에서의 투옥으로 알려져 있다(61-63년) 옥중서간 중에서도 필레몬서와 골로사이서는 더욱 연관성이 있다. 23절에 나오는 에바브라,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루가(필레 23, 골로 4, 10)와 오네시모(골로 4, 9)는 같은 시기에 쓰였음을 입증한다(골로 55, 7).

동기와 목적 : 노예인 오네시모는 주인의 물건을 훔쳤거나 처벌받을 잘못(11, 18)을 저지르고 도망했다. 그가 피신 중 도망자의 눈길을 끄는 무법 도시인 로마에 왔을 때, 바울로는 그를 만나 피신시켜 주고, 결국 그를 그리스도교에 입교시켰다. 바울로는 "내가 간혀있을 때 얻은 아들(10)"이라고 말하면서 그의 입교를 기뻐한다. 마침내 바울로는 오네시모가 필레몬의 노예였음을 알았고 주인에게 돌려 보내며(14, 16) 이 필레몬 서간을 지참시킨다. 이 편지에서 바울로는 필레몬에게 이제부터는 그를 종으로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형제로 받아주기를 간청한다(16). 사실상 바울로는 필레몬에게 법에 의한 중한 벌을 가하지 말기를 부탁한다. 바울로는 골로사이서 배달자인 두기고(골로 4, 7-9)와 함께 그를 필레몬에게 돌려 보낸다.

내용과 신학 : 첫째 바울로는 사도적 권위에 대해 필레몬의 복종을 원치 않았고, 오히려 수감자로서(1), 나이 많은 사람으로서(9), 또한 깊은 사랑으로 권한다(8-11, 21). 이런 신적인 태도 외에도, 바울로는 노예도 그리스도인 신분을 취할 자격이 있음을 말한다. 오네시모에 대한 바울로의 따뜻한 사랑이 이를 말해준다.

둘째 오네시모를 필레몬에게 보내며 바울로는 기존 사회 질서인 노예제도를 묵인한 듯이 보이나, 바울로는 그 당시 노예 제도를 폐지시키기 위한 노력의 무용함을 깨닫고 있었다(코린전 7, 20; 12, 13). 그러나 긴 안목으로 볼 때 바울로에 의해 호소된 그리스도인적 사랑의 원리와 그 표현이야말로 현대에 이르기까지 노예제도 폐지에 있어 절대적 기원이 되고 있다.

셋째 사도 바울로의 이런 태도는 사회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형시켜 사회 본연의 모습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니, 그리스도교인이 다른 그리스도 신자를 노예로서 소유할 수 없다는 사실 (갈라디야 3, 27-28; 골로 3, 11)을 말하며, 필레몬에게 노예인 오네시모를 그리스도인적 형제애로 맞아 주기를 권한다. 이 사도 바울로의 애원은 그리스도인적 사랑의 동기에서만 이뤄질 수 있다(8). 노예에 대한 바울로의 따뜻한 태도는 이 필레몬 서간에 잘 나타난다. 이런 점에서 이 서간은 또한 성경 안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 세계일주 관광시 □



어제와 오늘

조 해 형 (베드로)

- 뉴 욕 하늘이 주신 자유 어느 누가 뺏을까 미국의 자유물결 나라침을 걸렀지 거룩타 자유여신상 온누리를 밝히네
- 워싱턴 워싱턴 한복판에 나지막한 백악관 비둘기 잔디밭에 평화노래 꾸루루룩 부럽다 인류세제를 주름잡는 저 위용
- 하와이 진주만 찾아드니 폭탄맞은 아리조나 미국의 온겨레에게 잊지말라 가르치네 왜국의 고약한 무리 다시 침범 못하리
- 일본 칠백년 가마쿠라 흥망성쇠 어제런가 물어도 은행나무 그간 사연 대답없고 무상타 그 옛날 영화 찾을 길이 없으라
- 로마 판테온 코로세움 천고고적 남았어도 친하를 주름잡던 로마제국 간데없고 한가닥 뜬구름만이 그 머리를 스치는가
- 독일 라인강 맑은 물이 말이 없이 흘러가도 독일의 부흥발전 그지없이 눈부시다 기적아 켈만 겨레의 강철같은 투지여
- 벨기에 벨기에 사회복지 빈틈없이 이룩되어 거리의 얼굴들은 구김살이 전혀 없다 진실로 세상낙원의 이 기밀을 배워가리
- 바티칸 웅장한 대리석집 백년걸려 지었다단다 절묘한 조각중에 천년신비 잠겨있다 바티칸 베드로 성당 만년영광 누리소서
- 파리 태국의 산천초목 머없이 아름답다 그러나 나라들레 불안하기 짝이 없어 이 나라 걱정꺼리도 우리나라 닮았구나
- 태국 친하를 호령하던 만고패왕 루이 14세 기르짱 단두대에 말없이 간 루이 16세 파리며 베드사이유 한자리꿈 부질없네

(現 교구 형형 상임위원, 행복한 가정 운동 사쿠쿠장 사제양성 위원회 이사, 도 교무원회 교육위원, 전북 청소년 단체 협의회장 前 노송동 본당 사도회장)

□설계·감리·허가 수속□ 하나님의 성전과 교형자매들의 보금자리 건축에 희소식!!!



신원건축연구소

1급 건축사

김 철 수 (금구<연>)

☆ 전주 가톨릭센터 220호실

전화 3-7780, <야간> 3-1449

MCGREGOR

☆삼성물산☆

맥그리거

전주 특약점

고급화원 기성복(성인용, 아동용)

유 소 연 (울리안나)

☎ ④ 4 4 5 1 품년제과 분점 앞



□ 토막소식 □

순교자 현양대회

작년에, 그렇게도 억수처럼 쏟아지는 빗속에서도 누구 하나 자세를 흐트리지않고 우리는 순교자 현양대회를 마쳤습니다. 한가지 서운하다면, 비때문인지는 몰라도, 생자보다는 참여의 도가 약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시내본당의 참여는 너무나 약했었습니다. 작년보다는 성장을 믿으며 금년에도 행사를 갖습니다.

모이십시오. 그리고 **윤정이가** 떠나가도록 우렁차게 "장하다 복자여!" 하고 노래합시다. 아직도 복자위에 오르지 못한 순교선도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또 복자들은 성인위에 오르도록 기도하십시오.

1. **합동미사**...11시, 해성학교 교정

2. **글짓기 대회**...미사중에 시상

①내용...순교정신을 기리며, 오늘에 그 정신을 되살려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자.

②작품제출...위 내용으로 글 (산문이나 시, 제목은 자유로 선택)을 지어 14일까지

「전주시 서노송동 560-6 교구청내 평협 사무국」으로 제출 바람

③시상...국민학생부, 중고등학생부, 일반부 각각 최우수작 1편, 우수작 2편, 입선작 약간에 대해 시상함.

3. **성가 발표회**...오후 2시, 가톨릭 센타 강당에서 본당별로

①곡목...당일 미사곡인 「은세상아」, 「주여 나의몸과 맘」, 「나는포도나무요」, 「주여 임하소서」, 「복자 찬가」중 2곡을 선택하거나, 미사곡 중에서 1곡과 기타 자유곡 1곡도 가함.

②출연통보...참가 희망 본당은 14일까지 「평협 사무국」으로 출연자 명단과 함께 통보 바람.

③기념품 증정...출연자 전원에게.

4. **순례**...누갈다 모지나 복자성당 등의 순례를 권장함.

제 10차 전국 평협 총회

지난3-4일, 가톨릭 센타에서 한국 천주교 평신도 사도직 전국 협의회 제10차 정기 총회와 연수회가 있었다.

11개 교구, 7개 전국단위 단체의 대표들은 「평협운동의 진로」에 대해 연구 토론하고 78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을 수립했다.

총회후 이들은 전국교구 평협이 주선한 성지순례에 올라 누갈다 모지→전동성당→복자성당→**윤정이를** 순례했다. 전국에서 온 평신도 대표들의 환영과 성지순례를 위해 협조해준 단체와 본당은 약사회, 노송·덕진·복자·서학동·전동 사도회이다.

필리핀과 로마로

9월에 들어 전주교구 사제 3명과 평신도 1명이 연수차 외국에 나갔다.

□ **필리핀**...정승현 신부(前 사목국장), 정주복 선생(해성교 교사)...MBW 아시아 연수회 참석(9월 4일 출국)

□ **로마**...법진배 신부(前 대야주임), 김기수 신부(前 황동주임)... 4년간 로마 유학(9월 7일 출국)

요심이 (215)



□주산반·부기반·경리실무반□
삼일주산경리학원
 (국교부, 중고등부, 일반부)
 정진경 (분도)
 ☎ ① 4 6 2
 병무청←→구 법원 중간

□타자수리,취업알선,매월점정□
뉴-타자 학원
 원장 신승무(바오로)
 전화 ② 6 6 6 4
 (전주 간호전문학교 앞)
 전주시 남노송동 605-1

◎사진기계·사진재료 도산매◎
태 광 사
 (구 태 양 사)
 유영문(가이다노)
 전주시 중앙동 3가 67
 전주 우체국 후문 앞
 ☎ 2-6346

*여성 여러분에게
 멋을 선사합니다*
세느 의상실
 최춘자(로사리아)
 전주시 중앙동 전주극장 동편입구
 전화 ② 6 2 1 9

금·은·보석·고급시계는
 전주 남문옆 교우집으로 오세요
미성당시계점
 장금태(방지거)
 ☎ 2-3301 (자택 2-8548)

◎교우들의 건강 관리 센터◎
영진약국
 -조제약 전문
 김을태(베드로)
 ◎육교옆 중앙시장통
 (전화 ③ 4577)

□개원안내□
 ★언제나 찾아주세요★
수석(水石)치과의원
 전주시 중앙동 3가 42-1
 <박소아과> 앞
 원장 김현(아오스딩)
 전화 ③ 1669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 마인드 콘트롤 공개강좌(15일<목> 오후 6시반, 가톨릭 센터) 무료 공개 강좌를 들으시고 수강여부를 결정하세요. 필요한 대로 시간 조정은 가능합니다(낮반, 저녁반) mind control이란 「48시간에 우월한 사람이 되는 놀라운 정신역학」이요, 「마음을 마음대로 조절하여 얻어지는 평화와 안식과 완전건강 (특히 불면증 치유등)요법」입니다. 매주 목·금·토요일로 4주간 계속되는 강좌입니다.

※김병상 신부(필립보, 인천교구 부주교) 긴급초치 9 초 위반으로 구속되다. 김신부님은 지난 8월 29일 인천 담동 성당에서 있었던 <사회 정의 위한 기도회>관계로 9월 3일 새벽 4시 30분, 황상근(베드로, 도화동 주임) 신부님과 함께 연행되었다가 황신부님은 당일 12시에 석방되고, 김신부님은 구속되었습니다. 김신부님을 위한 뜨거운 기도 바랍니다. 12일 인천에서 다시 기도회가 있습니다

1. 순교자 현양대회 (18일 <일>...자세한 내용은 3면 참조)
 - ① 합동미사...11시, 해성학교 교정에서
 - ② 글짓기...14일까지 작품제출
 - ③ 성가 발표회...14일까지 신청마감
2. 푸르실로 교구 올드레아 (오늘 오전 11시, 가톨릭 센터, 회비 1,000원 증식제공)
3. 교구 인사 (8월 29일자) 사목국장-이수현 (보나벤투라...전 교구신부), 혼인문제 담당실 서기-김진석 신부
 - ※정의 평화 위원회 간사-한복섭 신부 (홍보분과 위원겸), 인권분과 위원-김영신 신부

※ 감사합니다 제10차 전국 병협 총회를 잘 마칠 수 있도록 협조주시신 단체 및 분당 사도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구약사회 (2만원), 노송동·덕진·복자·서학동 사도회 (각 5천원), 전동 사도회 (1만원)

□ 방송안내...문화방송 (MBC)...매일 밤 11시 25분 「별이 빛나는 밤에」 강인택 신부 방송
서해방송 (SBC)...매일 밤 11시 30분 「사세의 오솔길」 김순태 신부 방송

4. 교구 중고등 학생 제 2 차 회장단 회의 (18일 <일> 오후 1시, 가톨릭 센터, 회비 200원 안건...추계 체육대회)



(중앙)

전화 ③651 3874 주임 신부 서응복 보좌 신부 김진석 사도 회장 이복석

1. 애령회 임시 총회: 11일 공식미사 후, 유치원
2. 푸리아 월례회: 11일 오후 2시, 강당
3. 쉼지도자 회의: 11일 오후 3시, 사제관 3층
4. 방지거 3회 산청 성심원 방문: 14일 <수> 오전 6시반 출발 (도시락 지참)
5. 노인학교 창설: 14일 부터 매주 <수> 오후 2시, 강당 대상-만 60세 이상의 남녀, 예비 소집-11일 공식미사 후, 강당
6. 순교자 현양 미사: 18일 오전 11시, 해성학교
7. 성지 참배: 19일 <월> 오전 7시 성당에서 출발 김대건 신부님 묘지 (경기도 안성)
8. 활동 위령 미사: 추석 (27일) 맞이하여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정성껏!
9. 혼인성사 받으실 분은 1개월 전에 분당신부와 면담 바람
10. 기증 감사합니다! 독서 표시판 (익명)

(노송동)

전화 ②7032 주임 신부 공아영 보좌 신부 권용희 사도 회장 박종용

1. 신용조합 월례회: 오늘 밤 8시반
2. 노송 신우회 모임: 오늘 저녁 미사 후
3. 예비자 피정 (16일 <금> 오후), 영세식 (17일 <토>, 오후 2시) 예비모임들 17일 오후 1시부터 나오세요
4. 축 J.O.C. 남자팀 발족! 수고 하셨습니다 회장-김종환, 서기-김종현, 회계-유철용
5. 명상의 집 신축기금 신임 감사합니다 (인후동 편) 노인식 (100만), 박성규, 김성록 (각 5만), 고혜자 (4만), 이재열 (3만), 전옥진, 김형호, 이강선, 최복배, 안인자, 강병희, 이승은, 신화철, 이원택 (각 1만), 이순이 (7천), 박결배, 임금덕, 한진희, 안복태, 김진숙 (각 5천), 유옥순 (4천), 정순이, 김행덕, 박태준, 박공순, 홍일순, 이정신, 우성녀, 한임순, 한봉임 (각 3천), 이결배, 이현숙, 정남순, 최복배 (각 2천) 한귀녀, 정석의, 박일순, 박양금, 박영자, 박영애 (각 1천)

□ 지난주 봉헌금: 53,518원

(덕진)

전화 ②2182 주임 신부 박종근 보좌 신부 김용환 사도 회장 김용환

1. 추석 합동 위령 미사: 27일 오후 7시반
2. 준공식 대비 성가연습: <토> 오후 4시, 청년 학생, 어머니
3. 가정의 귀염둥이들 교리반 (<일> 오후 2시, 미사 -3시)에 꼭!
4. 청년회, 성모회 월례회: 오늘 미사 후
5. 제대 꽃 봉헌 감사합니다...최덕배 (엘리사벳) 씨
6. 고백성사 시간: 미사 40분전, 착오 없기바람
7. 신축 헌금 신임감사! 정연희 (5만), 임정남 (1만), 이성환, 유덕열 (각 5천), 박오복 (3천)

신입총액 9,175,000원, 납부액 5,325,456원 □ 지난주 봉헌금: 26,805원

(복자)

전화 ②5238 주임 신부 김종택 보좌 신부 조성호 사도 회장 조성호

1. 사도회 정기총회: 오늘 공식미사 후, <안전-추경에 산심외, 임원개선> 임원, 박희장, 신심 단체장 및 옆 서로 통보 받은분들 꼭 참석바람
2. 봉헌금 (교부금) 수히 완납 바랍니다
3. 성우회: 오늘 공식 미사 후, 우준석 (바오로) 형제며
4. 첫 영성체 교리: 12-24일 오후 5-6시반 수히, 신입바람
5. 다음주 (18일) 순교자 현양대회 관계로 공식미사없음

□ 지난주 봉헌금: 41,170원

(서학동)

전화 ②2276 주임 신부 오현택 보좌 신부 박장춘 사도 회장 박장춘

1. L.M. 간부회의: 선교주일 10시 미사 후, L.M. 회의실
2. 반상회: 5만-13일, 6만-14일, 7만-15, 8만-16일 (통장지참)
3. 추석 불우이웃돕기 헌금: 25일, 형제애를 발휘합니다
4. 기증 감사합니다! 성당문패-조동근 (시문), 웨딩드레스-유순희 (가타리나), 백미 1말-김정수 (미카엘라)
5. 교부금 납입자: 6만 (박중강, 신혜경, 진실배, 황인구, 조동근, 이주아), 7만 (장기호, 김선녀, 진화옥, 전막배), 8만 (한을순, 원정애, 이성근, 이정화)

□ 지난주 봉헌금: 42,485원

(숭정이)

전화 ②7366 주임 신부 이대권 보좌 신부 전종근 사도 회장 전종근

1. 학생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2. 예비자 교리 주일 공식미사 후, 평일 <화·목> 밤 8시
3. 공동체 성가를 배웁시다: 주일 미사 후
4. 아동미사: <토> 오후 4시, 국민학생들 꼭 보내주세요
5. 다음주 신자들의 기도: 홍성조, 강삼식, 박봉자

□ 지난주 봉헌금: 74,375원

(전동)

전화 ②3222 주임 신부 김함철 보좌 신부 김윤선 사도 회장 유석중

1. 자모회 (10시미사 후), 장우회 (저녁 미사후)
2. 성 가정회: <월> 오후 2시
3. 순교자 현양 대회: 11시, 숭정이 <교구 합동 미사>
4. 치명자산 9일 기도: 매일부터, 새벽 6시미사, 매일부터 분당 미사없음
5. 글로리아 합창단: 성가 경연 (18일), 성가 발표 (24일)
6. 주일학교 공개 수업: 10시미사 후 1학년, 주일학교개폐제인 (2시 어린이 미사 참례)
7. 어린이 치명자산상 미사: 다음주일 오후 2시, 성당집합
8. 신용조합 월례회: 14일 <수> 밤 8시
9. 미사시간 변경: 아침 6시, 저녁 7시반
10. 대신학교 입학 희망자 상담 <주임 신부께>
11. 복자 성월은 봉헌 (전립금, 교부금)의 달!

□ 성당 건립 헌금: 30,647,000원 □ 지난주 봉헌금: 135,250원